

김선화 / 5월+6월 / 실전 GS / 6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42615	15.5	12	20	14.5	62	1	2.08%	48
542706	15.5	12	16	13.5	57	2	4.17%	
541733	18.5	10.5	15.5	12	56.5	3	6.25%	
541899	14.5	10.5	19	12	56	4	8.33%	
542033	16	13	17	10	56	4	8.33%	
542789	16	10.5	19	10	55.5	6	12.50%	
543093	17	12	15.5	10	54.5	7	14.58%	
541738	16.5	11.5	13	12.5	53.5	8	16.67%	
544656	15	11	17	10.5	53.5	8	16.67%	
541764	13	9.5	18	12	52.5	10	20.83%	
544055	11.5	10.5	17	13.5	52.5	10	20.83%	
541984	13.5	11	15.5	12	52	12	25.00%	
543513	16	11	19	6	52	12	25.00%	
542521	14.5	7.5	18.5	11	51.5	14	29.17%	
543347	17.5	8	12	14	51.5	14	29.17%	
544542	15	7.5	14	13.5	50	16	33.33%	
549690	16.5	9	14	10	49.5	17	35.42%	
543675	16.5	9	13	11	49.5	17	35.42%	
542951	11	10.5	17.5	10	49	19	39.58%	
541787	14.5	8.5	13	12.5	48.5	20	41.67%	
535192	10	9	17.5	11	47.5	21	43.75%	
543322	15.5	8.5	14	9	47	22	45.83%	
544517	6.5	10.5	19	10.5	46.5	23	47.92%	
542650	13	7.5	16.5	9	46	24	50.00%	
544813	14	9.5	11.5	10.5	45.5	25	52.08%	
541776	10.5	10	15	9.5	45	26	54.17%	
541184	17.5	8	11	7.5	44	27	56.25%	
543817	7	10	18.5	8.5	44	27	56.25%	
544722	9.5	11	14.5	9	44	27	56.25%	
542787	10.5	6	16	10	42.5	30	62.50%	
544469	13	10	11	8.5	42.5	30	62.50%	
542660	9.5	8	12.5	11	41	32	66.67%	
542424	14.5	10	14.5	1.5	40.5	33	68.75%	
541783	7.5	8.5	13.5	8	37.5	34	70.83%	
543546	7	10	13	7.5	37.5	34	70.83%	
544535	11.5	0	15	11	37.5	34	70.83%	
542140	10.5	4.5	14	8	37	37	77.08%	
543496	9	9	12.5	6	36.5	38	79.17%	
544348	10.5	7.5	9	9	36	39	81.25%	
544137	10.5	0	16	7.5	34	40	83.33%	
544817	10	0	15	9	34	40	83.33%	
535647	11.5	5.5	7.5	5.5	30	42	87.50%	
544295	9	6.5	9	4	28.5	43	89.58%	
542824	14.5	9.5	4	0	28	44	91.67%	
542812	11	11	1.5	0	23.5	45	93.75%	
535255	5.5	9.5	8	0	23	46	95.83%	
544689	8	0	9.5	4	21.5	47	97.92%	
544353	4.5	9	5	0.5	19	48	100.00%	

김선화/5월/실전GS/6회/1번	채점자
	유화정
<p>이번 회차는 1문이 상당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p> <p>1. 설문 1</p> <p>특히 설문 1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물었는데도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를 검토하느라 너무 많은 배점과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설문의 주 논점인 저작자 판단과 저작재산권의 양도규정에 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원기실/사통새수/새창부 판례만 간단히 서술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p> <p>이 설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점이 ‘프로그램 C가 프로그램 A, B각각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점’ 이었는데, 특히 A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명확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 다소 모호했기에 이를 케이스를 나누어서 검토하셨다면 더욱 깔끔한 인상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상 그렇게 푸신 분이 거의 없었기에, 논리전개상 맞게 푸셨으면 점수를 부여해드렸습니다.</p> <p>2. 설문 2</p> <p>설문 2에서는 문제에서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하였는데도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만을 결론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에서 묻는바 대로 결론을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김선화/5월/실전GS/6회/2번	채점자
	조은석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언급	1	6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 판례	1	
		사안 포섭 및 설문의 해결① - 복제 해당 여부(적극)	1	
		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 언급	1	
		2차적저작물 판단기준 판례	1	
		사안포섭 및 설문의 해결② -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소극)	1	
	2	법 제35조의5 제1항 언급	1	7
		법 제35조의5 제2항 언급	1	
		법 제35조의5 제2항 통한 사안 포섭 (각 호를 통한 포섭 - 1점 / 甲이 출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언급 - 1점 / 저작권자 乙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음을 언급 - 1점)	3	
		설문의 해결 - 甲 주장 부당 (甲 주장 타당으로 해결 시 0.5점)	1	
		패러디에 관해 맞는 내용 서술 시 0.5점 ~ 1점	1	

1. 총평

6회차 GS 답안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점기준대로만 칼채점을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전GS 수강생분들 대다수는 잘 쓰셔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 설문 1

설문 1에서 코멘트 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번 기회에 ‘복제 시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에 관한 판례’ 챙겨가 주세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② 기존 사진에 여백만 자른 점, 포스터 양식도 기존 SNS에 유행하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행위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되나, 남들과는 다른 甲의 독창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문 2

설문 2에서 코멘트 드릴 부분도 두 가지입니다.

① 짱돌 성격이 강한 패러디 논점에서는 서술 정도에 따라 0.5점 ~ 1점의 작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짱돌 문제여도 포기하지 않고 배점을 고려하여 적당히 쓰시면 좋습니다!

② 甲 주장이 타당하다고 포섭하셔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채점기준에 서술한대로 甲이 출처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점, 乙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 속 상황을 적절히 포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회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 GS 시험까지 파이팅입니다!

김선화/5월/실전GS/6회/3,4번	채점자
	유화정
<p>1. 문제 3번</p> <p>설문 1에서 침해여부 판단 시 이용행위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에서 “그 외 별도의 창작성 있는 부분은 없다” 고 하였는바 이 사건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p> <p>설문 2에서 방법을 논하라고 하였으므로 방법을 다각적으로 풍부하게 검토하신 분들께 점수를 많이 드리려고 하였고, 일반론에 대한 서술이 길어도 일정 점수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는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방법 1, 방법 2 이런 식으로 중목차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2. 문제 4번</p> <p>설문 1에서는 공동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점에 관한 일반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와 공동저작물 자체에 대한 일반론을 쓰시느라 지면을 할애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9점이라는 배점과 더불어 설문 2에서 제48조 1항과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고 서술할 것을 생각해 설문별 목차를 미리 짜고 나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p>	

김선화/5월/실전GS/6회/2번	채점자
	조은석

< 채점기준 >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언급	1	6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 판례	1	
		사안 포섭 및 설문의 해결① - 복제 해당 여부(적극)	1	
		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 언급	1	
		2차적저작물 판단기준 판례	1	
		사안포섭 및 설문의 해결② - 2차적저작물 작성 여부(소극)	1	
	2	법 제35조의5 제1항 언급	1	7
		법 제35조의5 제2항 언급	1	
		법 제35조의5 제2항 통한 사안 포섭 (각 호를 통한 포섭 - 1점 / 甲이 출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언급 - 1점 / 저작권자 乙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음을 언급 - 1점)	3	
		설문의 해결 - 甲 주장 부당 (甲 주장 타당으로 해결 시 0.5점)	1	
		패러디에 관해 맞는 내용 서술 시 0.5점 ~ 1점	1	

1. 총평

6회차 GS 답안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점기준대로만 칼채점을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전GS 수강생분들 대다수는 잘 쓰셔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 설문 1

설문 1에서 코멘트 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① 이번 기회에 ‘복제 시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에 관한 판례’ 챙겨가 주세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② 기존 사진에 여백만 자른 점, 포스터 양식도 기존 SNS에 유행하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행위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되나, 남들과는 다른 甲의 독창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문 2

설문 2에서 코멘트 드릴 부분도 두 가지입니다.

① 짱돌 성격이 강한 패러디 논점에서는 서술 정도에 따라 0.5점 ~ 1점의 작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짱돌 문제여도 포기하지 않고 배점을 고려하여 적당히 쓰시면 좋습니다!

② 甲 주장이 타당하다고 포섭하셔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채점기준에 서술한대로 甲이 출처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점, 乙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 속 상황을 적절히 포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6회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 GS 시험까지 파이팅입니다!

김선화/5월/실전GS/6회/3,4번	채점자
	유화정
<p>1. 문제 3번</p> <p>설문 1에서 침해여부 판단 시 이용행위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에서 “그 외 별도의 창작성 있는 부분은 없다” 고 하였는바 이 사건 대본은 2차적저작물이 아닌 복제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p> <p>설문 2에서 방법을 논하라고 하였으므로 방법을 다각적으로 풍부하게 검토하신 분들께 점수를 많이 드리려고 하였고, 일반론에 대한 서술이 길어도 일정 점수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타입의 문제는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방법 1, 방법 2 이런 식으로 중목차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2. 문제 4번</p> <p>설문 1에서는 공동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점에 관한 일반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와 공동저작물 자체에 대한 일반론을 쓰시느라 지면을 할애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9점이라는 배점과 더불어 설문 2에서 제48조 1항과 관련해 공동저작물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고 서술할 것을 생각해 설문별 목차를 미리 짜고 나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p>	

[문제 - 1]

185

I. 선택 (1)

1. 서론

프로그램 C가 프로그램 A, B 각각에 대한 최적저작물인지
판정하고, 양도계약에 관계 최적저작물 존재가 이변기 검토한다

2. 최적저작물인사 여부

(1) 의미 (제 5조 1항)

최적저작물은 원저작물 변형 등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
을 말한다

(2) 판정기준 - 판례

최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은 기초 자료 원저작물과 상당성
유사성을 갖게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수정·경조는 통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여 창조 판정한다

(3) 판례

프로그램 C는 프로그램 A를 업데이트한 프로그램 B를 업데이트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A, B 각각은 기초 자료, 각각 모두 상당성
유사성이 부족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창작 새로운
창작성이 부족하므로 그에 따라 A, B 각각과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바, 프로그램 C는 프로그램 A, B 각각에
대한 최적저작물이 판정된다.

3. 프로그램 B에 대한 최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인지 여부

(1) 프로그램 B에 대한 최적저작물 작성권과 - 판



1) 2720원 이하의 양도 (한 45% 28%)

과학계에서의 진보로 양도하는 것이에 특성에 있는 것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학적 과학문헌을 통해 양도된 것으로 프로그램에 -

2) Adre

[illegible]

(7) 572

양도계약으로 인해 프로그램 B의 저작권자를 상속받은 P-1은
 P-1 프로그램 C 제작은 자신의 권리에 의한 이용으로
 프로그램 B에 대한 저작권 상속권 침해가 아니다.

4. 프로그래밍 A에 대한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여부

(1) 중개도전

1) 이 원호는 지각변의 흔적 2) 화석이며 지각물 (용암대) 3) 화산성
 4) 산성지 지대성 5) 광양군인 업은 것이 호수이다.

2) For

1) 프로그램 A의 유효한 재검증이 주어지면 풀리게 된다. ii) 甲이 프로그램 C를 재검정한 것은 과학자 재검증의 증거이다. iii) 안테이트 폰 것으로 드러나
고라 iv) 과학적 재검증이란 실험적 유효성도 인정되는 것과 甲에게
증대되었기에 의한 이용인거 여부를 검토한다.

(2) 甲子 庚子 庚子 庚子

1)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 46조 1항)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할 수 있고
2) 판매

판례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평생권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사안

앞서 기재한 것처럼 G은 M에게 프로그램 B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향유 계약은 통해 저작물을 작성한 양도인에게 귀속,
프로그램 B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양도인 프로그램 A에 관한
판례가 있어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 A에 관한 저작물을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M의 프로그램 C 제정인 프로그램 A에 대한 목적의 이용허락
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 이용으로 저작물을 작성한 권리가 있다

5. 결론

M이 프로그램 C를 제정한 것이 프로그램 A 및 B에 대한
저작물을 작성한 권리가 모두 있다.

II. 서문 (2)

1. 임시적 복제 (제 22조 2항)

1) 복제는 인쇄, 복사 등의 방법으로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고정하거나 재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복제의 본질이 임시적



복제 행위를 포함하였다.

(2) 사안

J의 행위는 프로그램 D를 컴퓨터에서 실행한 바 그 과정에서 RAM에 임시로 저장되는 일차적 복제행위 책임한다.

2. 제 35조의 2 제1항에 해당 여부

(1) 의미·목적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본으로 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은 그 컴퓨터에 임시로 복제할 수 있다. 순차적 무효의 반대로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이용은 도모하기 쉬웠다.

(2) 예외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J의 이용이 2차적 저작물 작성 여부 - 소극

1) 계약조건 위반은 A용의 경우 - 판례

판례는 복제에 대한 허용적, 배은 기타 사용방법이나 조건은 위반했더라도,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재무분개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법원,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사안

T는 저작권과 주에게 복제에 대한 허용적, 배은 기타 동시권속자 수 계약은 위반해 사용했더라도 복제적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은 이종한과로 복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35조 제 2의 제1항의 예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D의 행위와
유전정보를 토대로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인식적 복제 권리 여부가 문제된다.

(4) 피고의 이익 침해 여부 - 판례

인식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은 물론,
안정성 및 토착성 문제를 위해 입국하는 것은 불가피한,
인식적 복제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판례

(5) 소안

D의 인식적 복제는 프로그램 D의 실행을 위한 것으로서, D의
인식적 복제로 인해 프로그램 D와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상
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적 복제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D의
인식적 복제는 유전정보를 토대로한 정보처리를 위해 피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 35조 제 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D의 행위는 제 35조 제 2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 1 판

판례. 2판
판례. 1판 이다!
판례. 2판 이다!



ਉਸਨੇ ਸੁਆਧਿ ਯੁੱਧ ਵਿੱਚ ਸ਼ਾਮਲ ਹੋ ਕੇ ਸਰਕਾਰੀ ਸੇਵਾ
 ਦੀ ਗਤੀ ਸਰਜਾ ਕੀਤੀ ਅਤੇ ੨੦੧੩ ਵਿੱਚ ਹਾਜ਼ਰ ਹੋਇਆ, ਜਦੋਂ
 JNU ਦੀ ਸਰਕਾਰੀ ਪੁਲਿਸ ਯੁੱਧ ਵਿੱਚ ਸ਼ਾਮਲ ਹੋਇਆ ਅਤੇ ਸਰਕਾਰ
 ਦੀ ਸਰਕਾਰੀ ਸੇਵਾ ਵਿੱਚ ਸ਼ਾਮਲ ਹੋਇਆ ਅਤੇ ਸਰਕਾਰੀ ਸੇਵਾ
 ਵਿੱਚ ਸ਼ਾਮਲ ਹੋਇਆ ਅਤੇ ਸਰਕਾਰੀ ਸੇਵਾ ਵਿੱਚ ਸ਼ਾਮਲ ਹੋਇਆ
 ਪੁਲਿਸ ਯੁੱਧ ਵਿੱਚ ਸ਼ਾਮਲ ਹੋਇਆ ਅਤੇ ਸਰਕਾਰੀ ਸੇਵਾ ਵਿੱਚ ਸ਼ਾਮਲ ਹੋਇਆ

ॐ शुभ शुभ

이 수의 3번째 자릿수는 이 수의 수의 '중간'이다.

II

अप्र (2)

very good!

1

중재의 순서

କ୍ଷୟ ସ୍ଥଳୀ ନାମ ① ଜାମୁଣା ଗ୍ରାମ ② ଶାଫିଆ
୨ ଗାୟକାପୁର ଗ୍ରାମ

2

०। यह इन्द्र-आशुभुषण 'आशु' ०२।

(c)

‘आशा’ की ओर से

[illegible]

이 수직선의 수직선 이면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4

수직의 수직

수직의 수직 수직 수직

[20]

[문제 3]

I. 선문(1)

1. 저작재산권 침해요건

① 유효한 저작권 ② 이용행위 ③ 비거성 ④ 신격자유사성
이 인정되면 침해이다.

2. 甲의 유효한 저작권인지

(1) 저작물 이 사건 소설의 저작물인지

1) 저작물 정의(21조)

인간의 사상, 감정을 창작자 표현이다.

2) 창작성 판단기준(21조)

단순한 양의 것 모방에서는 안되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있어야 한다.

3) 사안

이 사건 소설은 甲의 상상 통해 풍부한 관여와 원형 이야기 자체
창작성 인정되어 저작물이다.

(2) 甲이 저작자인지

1) 저작자 및 창작자주체 (2조 1호, 10조 2항)

저작물 창작해 자는 저작자이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행위 없어도
저작권은 가진다

2) 사안

이 사건 소설 甲이 창작한바 무로 저작권 가진다.



3. Z의 이용행위

(1) 복제. 배포 의의 (2조 22호, 23호)

① 복제는 인쇄 등 방법을 정국적·인식적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고 ② 배포는 원본·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 불거나 불
없이 양도하는 것이다.

(2) 사안

Z는 이 사건 소원을 대중에 고정하여 복제하였고 배운들에게 프린트
하여 나누어주어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받지 않고 양도한 것이므로
배포하였다.

4. 의거성 판단

(1) 판단대상 행위

저작권법이 의거 반문항 표현물 아니라 불문받지 아니한 표현로
판단대상이 된다

(2) 판단방법 취지

기존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유사성 인정되면 의거성 추정되고
특정적 작성되어 같은 분야에 이른 가능성 배제된 정도 현저한 유사성
인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의거성 추정된다

(3) 현저한 유사성 판단 취지

우연치 않거나 공통 소재로 설명할 수 없고 의거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공통이 인주가 있는 것은 의미한다.

(4) 사안



甲 신청서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가 있는데 그 대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선명할 수 없는 정도에 공통의 진위 있으므로 해당 유사성 인정된다. 따라서 의거성 인정된다.

5. 선적지 유사성 판단

1) 판단대상

창작자인 표현방식은 대변하다

2) 사실

甲 신청의 관련된 전후에 이야기는 창작자 표현방식에 있는데 그 대분 그대로 있어 선적지 유사성 인정된다.

6. 결론

그은 甲의 불제권. 배제권은 침해하^지 않았다.

Ⅱ. 선문(2)

1. 드라마가 2차저작물인지

1) 2차저작물 의미 (50)

원저작물은 번역. 표절. 각색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 판단방법 4요소

원저작물 기초로 선적지 유사성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물인 정도의 수정 증강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 추가하는 경우 2차저

저작물이냐

(가) 사안

드라마는 소설을 기초로 하여 그 이야기를 이용하여 신원적 유사성 인정
되고 새로운 이야기 추가하여 새로운 창작성 추가하는 것이므로 드라마는
소설이 2차저작물이냐.

2. 드라마 따 저작물 저작하기 위한 방안

(1) 2차저작물작성권 양도받는 방안

1) 저작재산권 양도 (45①)

저작자는 저작재산권 전·인부 양도할 수 있다

2) 사안

2인 무이찌 소설에 대해 2차저작물 작성권 양도받아 드라마
제작할 수 있다.

(가) 2차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받는 방안

1) 이용허락 (44①)

저작자는 저작물 이용허락할 수 있다

2) 사안

2인 무이찌 소설에 대해 2차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받아
드라마 제작할 수 있다.

(3) 영상화 허락받는 방안

1) 영상화허락 (99①)

저작물 영상화 허락할 때에 영상저작물 저작하기 위한 각종 상



상영, 방송 등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안

이 사건 사건에 대해 영상저작물인 드라마로 영상화한 허락을 받으면 그 제각각의 각색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B는 B에게 영상화 허락 받아 드라마 제작한 후 있다.

4) 아무런 조치 받지 않는 방안

드라마는 소설의 2차적 저작물로서 소설 저작자인 A의 허락이 없더라도 성립되는 아니고 창작물인 B이므로 2차적 저작물로서 드라마 제작할 수 있다.

[문제 -4]

145

I. 선출(1)

1. 공동저작물, 연합저작물 이의 (2조 2항)

①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 부분 분하여 이용한 수 없는 것은 맞는다.

② 연합저작물은 여러 저작물의 연합으로 각자 이바지한 부분 분하여 이용한 수 있다.

2. 각자의 저작물 분리가부

① 공동저작물은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분가 불가능하거나 분가 이용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며 (원칙) ② 연합저작물은 각 저작물 분리가 가능하다

3. ^{양도}이용허락 규정

① 공동저작물은 ^{공동} 창작한 저작물로서 저작물은 48조 규정에 따라 양도, 이용허락 할 수 있고 ② 연합저작물은 각각 저작물의 저작자나 45조, 46조를 통해 양도, 이용허락 할 수 있다.

4. 권리행사양제

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단독으로 침해금지청구, 시정명료 손해배상 청구하며 ② 연합저작물은 각자 자신의 저작권에 기해 침해금지, 손해배상 할 수 있다.



5. 보호기간

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② 전합저작물은 각 저작물이 저작권이 그 저작자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II. 선문(2)

1. 이 사건 그림책이 공동저작물인지

㉠ 甲과 乙이 '창작' 했는지

1) 甲의 경우

창작자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며 공동저작자 합치
하렸다고 하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사안

甲과 乙이 하나의 그림책 만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 乙은 각각 스토리, 그림 등 창작자 표현형식에
기여하여 창작하였다.

㉡ 공동창작 여부

1) 甲의 경우

공동창작자가 아니고 창작자 표현형식에 공동 기여 한자를 만하여
각자 분리이용 불가능한 단일한 저작물은 작성한 것은 의미한다.

2) 시기관리하여 작성한 경우 甲의 경우

선행저작자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저작과 수정 증강하여
단일 저작물 만든다거나 가지고 있고 후행저작자도 선행저작자가 만든

부분 기조하여 단일저작물 만든 의사 있으면 공동저작의사 인정된다.

⑤ 사안

무슨 이 사건 그림책의 스토리 부분 먼저 작성하고 그이 수정증정하여 단일저작물 만든 의사 가지고 그도 그 부분 기조하여 그림 덧붙여 단일저작물 만든 의사 있어 공동저작의사 가지고 보아야 불가능한 그림책 작성하였으므로 공동저작물이다.

2. 공동저작자 저작재산권 행사방법

① 48조 1항

공동저작물이 저작재산권을 전권 행하기 위하여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 신의 반하여 합의성립 방식이거나 동의는 거부할 수 없다.

② 사후통지 거부

1인이 행사한 후 나머지 저작자등에게 사후통지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사안

3. 무주상의 타당성

① 사후통지 관련

사후통지 한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부당하다.

② 동의 관련

무슨 계약 체결 전후 계약서 받았고 그이 연락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응답하지 않은 바 신의 빈하여 권리 성립 방해하는 것이
 므로 권리 거부한 수 없다. 따라서 무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할 수
~~없다는 주장~~ 48조 1항 위반이라는 주장한 수 없어 이 부분을
 주장 부당하다.